

# 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19년 7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chansong.song@ekosa.or.kr, 02-559-3545)

## < Executive Summary >

### ◆ 글로벌 철강생산능력, '21년 최대 23.4억톤까지 확장될 전망

- OECD 발표에 따르면 '18년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은 22.3억톤 규모이며, 지역별로 아시아 1,473.0백만톤, 유럽 274.0백만톤, NAFTA 154.4백만톤, CIS 142.4백만톤, 라틴아메리카 74.7백만톤, 중동 67.3백만톤, 아프리카 41.6백만톤으로 분포
- '21년까지 글로벌 철강생산능력은 110.2백만톤이 확장될 전망이며, 이에 '21년 생산능력은 최대 23.4억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

### ◆ 연해지역으로 집중되는 중국의 철강 생산기지

- 중국 철강산업의 지역분포가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전환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해 지역에 5개 지역의 주요 철강 생산기지가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, 향후 연해지역에는 130.0백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치환을 통해 강화될 예정
- 철강 생산능력의 연해지역 이전에 대하여 물류이점에 따른 장점과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기존 생산설비의 단순한 이전 혹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 존재

### ◆ 미국, '19년 상반기 철강재 수입 감소, '19년 철강사 실적 호조 여부는 불확실

- 미국 상무부 SIMA에 따르면 '19년 상반기 반제품을 제외한 판재류, 강관, 봉형강류,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비 감소했으며, 브라질을 제외한 주요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
- '18년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A.Mittal NAFTA와 U.S. Steel의 '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감소